

2017년 8월 27일 "찾아오신 예수님(39) 하나되게 하옵소서"(요 17:6-12)

<도입>

성경은 종교적 형식과 금기/강령 사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관심과 강조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는 제자들(성도들)을 위한 예수님 기도 또한 종교성을 강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회복과 치유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1] 제자들을 위한 간구의 배경(예수님이 성취)

6~10 절까지 예수님께서 다하신 소명의 중심 내용을 말씀합니다.

- (1) 내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 이름(속성)을 나타내셨다(영광을 나타내심).
- (2) 그들이 아버지 말씀을 지켰다(6 후-7 절) → 16:30 후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오심을 제자들이 믿음.
- (3)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임을 제자들이 믿음으로써 예수님 영광을 나타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버지로부터 오심과 아버지의 것이 모두 예수님의 것임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새 관계가 맺어집니다. 예수님은 자기 방식과 뜻대로 사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늘 구하고 앎으로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원하시는 만큼 성취하셨습니다.

마 11:28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 = 소가 멍에를 썼을 때 주인이 조정하는 만큼만 움직이는 성품과 태도. 약에 비유한다면 한 알을 먹을 때 두 알의 효과를 내거나, 반 알의 효과를 낸다면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란 주인에게 길들여진 성품을 말합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태도입니다.

사람은 자기 뜻과 주장이 종종 앞서기 때문에 온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온유함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보내심을 받은 중보자로서 중요한 자질입니다.

[2] 아버지 이름으로 보전하사(11 절후)

'아버지 이름으로' = 아버지의 성품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먼저 아버지를 거룩하시다고 부르셨습니다(11 절). '구별된'이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권세와 악과 유혹으로부터 구별되신 분이죠. 그런 성품으로 제자들을 보전하시면 그들 또한 세상권세와 악과 유혹으로부터 분리/구별될 것입니다.

제자의 보전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느껴집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면서 이들이 새로운 모험의 삶으로 들어갈 것을 내다 보시며 자랑스럽기도, 안타깝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로마)가 적개심을 가지고 핍박과 고통을 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막 훈련을 마치고 갓 출격할 단계에 있는 초년 군사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17장에서 이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라고 부릅니다(2, 6(x2), 9). 아버지가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은 아버지가 주신 사람들입니다.

3:16 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음을 말하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입니다. 한쪽에만 선물이 되면 단절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 또한 소중하게 여기셔서 오늘도 동일한 심정을 갖고 중보자로서 지극한 사랑으로 간구하십니다(롬 8:34, 히 7:25). 제자들을 위하심과 같이 여전히 그분의 기도 속에서 우리를 보전해 가십니다.

[3]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하나됨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는 하나됨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도 싸움과 경쟁을 통해 쟁취해야 할 대상이지 함께 누릴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참 가치와 의미 있는 것들을 다 잃게 됩니다.

이 중요한 하나됨을 무시한 인물이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자타가 인정할 만큼 똑똑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웁은 자). 그런데 유다는 주님의 뜻 아래 자신을 하나되게 하지 않고, 자신의 이념과 행동 안으로 주님과 많은 이들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자기중심적).

여기서 우리는 그가 자기 신념 때문에 스승을 팔아버린 비도덕적 패륜만 보기보다는 인간의 깊은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자기 사상이나 장점에 심취하면 나르시시즘(자아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유다는 애초부터 주님을 엿보려고 접근했습니다. 자기의 신념과 행동에 주님이 필요한 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결국 그는,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가 자기 모습에 도취되어 물에 빠져 죽음을 맞이한 것과 같이 자신도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민족주의 사상과 신념은 분명한 실재(축복)를 이룰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허구(죽음)였습니다. 당장은 추상적인 것 같아도 자신을 진리에 종속시키면 그 결과 실재를 잡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는 실재를 이루기 위해 모든 자원과 심지어는 스승과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면 그와 같이 허구를 맞이합니다.

사람은 실재라고 믿지만 허구인 것이 참 많습니다. 지나친 광고, 드라마, 게임, 도박, 모든 중독들, 이러한 허구를 실재라고 착각하고 살기 쉽습니다. 그러면 내가 애쓰고 희생함으로 얻을 참 가치들을 잃습니다.

<맺음>

하나됨 위에는 실재를 이룹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똑똑했던 유다는 자기 신념이 추구하는 것이 실재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 선택이 되어야 하는지 영적 혜안이 뜨여져 하나됨을 위해 용기있게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들>

1. 17 장에는 예수님의 어떤 기도 내용들이 있습니까? 6 절 이하 끝절까지 꼼꼼히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목적을 갖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2.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설교에서는 하나됨에 대한 고찰보다는 하나됨을 거부한 유다의 사례를 중점으로 보았습니다. 유다는 어떤 면에서 옳았고, 어떤 면에서 그르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3.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되어 평화를 이루자고 말하며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날로 세상의 불화와 갈등이 세분화되고 더 파괴적으로 치닫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세상의 이 방향에 역행하는 길을 가려면 내게 있어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회복은 가능할까요?